

연길에서 얻은 내 자식들 - 지도 학생



유숙자

40년 넘게 교직 생활을 하던 내가 정년퇴직을 바라보며 세계기독간호재단의 이송희 이사장님을 만나게 되었다. 연길에 간호대학을 세우니 가서 간호대학을 맡아 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었다. 그래서 2년만 있으면 퇴직을 하니 그후에 가겠다고 약속을 하였다. 그런데 2001년에 뽑은 간호학부 1회 학생들이 한국으로 실습을 나오게 되어 1회부터 5회까지 학생들의 임상실습 지도교수 역할을 맡게 되어 정년 이듬해(2007년)에 연길로 가게 되었다.

연변과학기술대학(이하 연변과기대)에 가서 몇년 동안은 학부장 일로 너무 정신없이 살았던 것 같다. 나선식, 국제 심포지엄 등 년례 행사도 많았고 모두 중요한 일들이었다. 그리고 간호학생들을 위한 교육 이외에 연길의 지역사회 간호사들을 위하여 건강교육원을 설립하여 고급간호과정, 호스피스간호과정, 임상실무영어과정 등을 개설하여 정말 하루가 너무 짧았다. 완전히 일 중독에 걸린 사람처럼 살았다.

연길에 간 뒤 3년 되는해 2010년 새 학기부터는 나도 지도 학생들을 맡아 양육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3명의 학생을 맡기로 하였다. 이들은 나의 첫 자식이 되었다. 다른 교수님들이 학생들을 자식 사랑하드시 돌보는 것을 그동안 보아 왔기에 나도 그분들 처럼 학생들을 만나고 사귀고 그들의 고충을 들어주고 친하게 되었다. 그곳 학생들의 특징은 대부분 부모들이 한국이나 외지에 돈을 벌러 나가 부모 부재로 정서적으로 불안하거나 외로움, 자존감 저하 등을 나타내는 학생들이 많이 있었다. 그후 해마다 2~3명의 학생들을 받아 모두 10명의 지도 학생이 생기게 되었다. 그들은 내가 배 아프지 않고 얻은 자식들과 같았다.

일주일에 공식적으로는 1번씩 만나는 것으로 하였지만 학생들이 문제가 있을 때 마다 더 자주 만나 그들의 아픈 마음도 어루만져 주고 또 친하게 지낼 수 있는 즐거운 시간들도 가졌다.

학생들을 만날 때는 가능하면 학년별로 요일을 정해 따로 만났다. 주로 우리 집에서 방과 후 저녁을 먹으면서 만남이 시작되고 식사 후면 더 중요한 대화의 시간과 성경공부 시간으로 이어졌다. 학생들은 모두 기숙사 생활을 하기 때문에 교수이면서 엄마 역할을 해야 했다. 학업문제, 이성 교제문제, 가정의 어려움, 심지어 부모님들의 부부 싸움까지 중재해야 되는 때도 있었다.

처음엔 내가 저녁을 준비해서 먹었으나 얼마 지나서부터 그 애들이 집을 떠난지 오래 되었고 또 집에 있을 때에도 음식 만드는 법을 제대로 배우지 못한 것 같아 우리는 미리 메뉴를 함께 짜고 음식재료들을 내가 미리 준비하고 그날 그날 집에 와서 처음부터 음식 만드는 법을 가르쳐주고 같이 지지고, 볶고, 튀기며 요리실습을 하게 하였다. 학생들은 그 일을 너무 즐거워하였고 자기들이 직접 만든 음식을 맛있게 먹는 기쁨이 매우 컸다. 처음엔 식후 설거지를 학생들이 돌아가며 하였으나 다음 말씀 나누는 시간을 아껴 주기 위해 남편이 그 많은 설거지를 다 해주었다. 넘 감사했다.

우리는 학년별로 박 00교수가 교수들의 영성을 지도해주고 학생들을 가르치기 쉬운 교재를 주셔서 그것을 가지고 읽고 설명하며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그 진도가 학년별로 다르기 때문에 함께 시간을 같이 할 수가 없었다.

물론 소그룹일 수록 말씀 전하기가 더 좋은 것 같았다. 내 학생 중에는 공산당 고위 간부의 딸도 있어 그 학생은 자신이 성경공부를 하지 않겠다고 하여 식사만 같이하고 그 후 시간은 자유에 맡겼으나 잘 어울려 지냈다.

주일엔 예배 후에 북카페에서 다 함께 만나 점심을 같이 하고 연길 시내에 있는 Y교회 청년부에 선 후배가 함께 가도록 하였다. 그리고 봄이나 가을 철엔 모야산 등산도 함께 하며 가까운 야외에 나가 즐거운 시간을 갖기도 하였다. 2015년 우리 학교는 정년이 없는 학교라 하였지만 중국의 법에 따라 65세 이상되는 교수들을 다 나가라 하여 본의 아니게 연길을 갑자기 떠나게 되었다. 그래서 그해 졸업하는 학생들과 학사 까운을 입고 조각공원에서 사진을 찍고 후배 제자들도 우리가 졸업식에 참석할 수 없을 것 같아 넉넉히 가운데 빌려 모두 학사 까운을 입고 미리 졸업사진들을 찍었다.

한국에 와서도 학생 엄마가 아프면 병원에 입원시키고 찾아 위로해 주었으며 심지어 내 지도 학생은 아니었지만 엄마가 한국에서 일하시다 갑자기 쓰러져 결국 이 세상을 떠난 슬픈 일도 있어 찾아가 위로해 주기도 하였다. 나는 매해 여름 방학이면 계절 학기 강의를 핑계로 연변과기대를 방문하였으며 2019년까지 마지막 강의를 마쳤다(2019년 폐교 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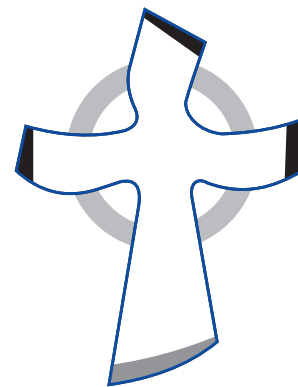
덕분에 매해 연길에 남아 있는 지도학생들을 만나 그들의 삶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동안 결혼하여 예쁜 공주, 잘 생긴 왕자님을 낳은 엄마 제자들의 이야기들을 들으며 그들의 삶을 축복해 주었다. 그 중 한국에 나와 잘 지내고 있는 K학생의 이야기를 소개 하고자 한다. 우리 간호학부는 입학 지망생이 항상 미달 되어 2009년부터 조선족이 많이 있는 고중(고등학교)을 방문하여 간호학부를 소개하게 되었다.

그중 용정에 있는 고중을 방문 했을 때 교감선생님이 착실하고 성적도 우수하고 책도 많이 읽는 학생인데 집안이 너무 가난하여 대학을 갈 형편이 못되니 우리 학부에서 장학금을 주면 보낼 수 있겠다고 간청을 하기에 무조건 보내

라고 약속을 하였다. 그 일을 놓고 먼저 기도 드리고 방학에 한국에 나와 옛부터 친하게 지내던 고교 친구를 만나 그 이야기를 하고 후원해 주기를 부탁하였다. 믿음 좋은 그 권사 친구는 K양의 입학금부터 졸업할 때까지 4년간 매 학기 등록금, 기숙사비, 약간의 매달 용돈까지 넉넉하게 장학금을 주어 걱정 없이 학업을 마칠 수 있게 해주었다.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감사드린다. 방학때면 한국에 나와 우리 집에 있으면서 알바를 하여 임상실습 나갈 때 쓸 용돈도 벌고 우리 딸과는 언니 동생하면서 한 식구처럼 잘 지냈다.

졸업 후 한국에 나와 한국 간호사면허 시험에 합격하여 지금 간호사로 근무 잘하고 있으며 좋은 신랑을 얻어 주례도 우리 남편 이교수가 해주어 지금은 딸, 아들 낳고 잘 살고 있다. 남편도 예수 믿는 사람을 만나 온 식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

연길과 타지에 나가 살고 있는 제자들 늘 보고 싶고 지금은 어떻게 사는지 궁금하다. 몇년 전까지 윗챗을 통해 소통을 했었는데 내가 전화기를 바꾸고 나서 윗챗을 개통하지 못해 소통이 끊어졌다. 중국이 기독교 탄압이 심하다는데 그들이 신앙을 지키고 살고 있는지? 사랑하는 내 딸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빈다. **PD**



서소문교회 은퇴권사
가톨릭대학교 간호대학 명예교수,
전 연변과기대 간호학부장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Ph.D.
서울대학교 간호학과(B.N.)
세계기독교간호대학 재단이사